

중 당대회 시진핑 '인민영수' 칭호 확산

지역별 토론회 등 앞다퉈 사용 사실상 마오쩌둥 이후 처음 '원톱' 집권 장기화 모색 관측

제20차 중국 공산당 전국대표대회(당 대회) 계기에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에 대한 '인민영수' 칭호가 확산하고 있다.

중국 각 지역 매체들에 따르면 왕천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 상무위 부위원장은 지난 17일 열린 후베이성 당 대회 대표 토론회에서 "2012년 18차 당 대회 이후 당과 국가 업무에서 세계가 주목할 찬란한 성취를 거둔 근본은 시진핑 총서기가 당 핵심, 인민영수, 군 총사령관으로서 키를 잡고 항해를 이끈 것에 있다"고 말했다.

또 지난 16일 인홍 간쑤성 당 서기는 간쑤성 대표단의 시 주석 보고서 토론회에서 "당 중앙의 올바른 영도와 당의 핵심이자 인민영수이자 군 사령관으로서 우리를 계속 이끌어 갈 총서기가 있다는 사실에 매우 든든하다"고 밝혔다.

같은 날 신장성 칭하이성 당 대회 대표는 칭하이

성 대표단 토론회에서 "우리가 시진핑 총서기와 같은 결출하고 비범한 위대한 영수를 가진 데 대해 자부심을 느낀다"고 말했다.

또 18일자 창장일보와 인터뷰한 우한시 장한구 뉘원 지역 당비서인 텐린은 "20차 당대회 보고서에서 특별하게 한마디로 코로나 방역을 언급한 것은 인민영수가 인민에 대한 뜨거운 마음을 구현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와 함께 관영 중앙TV(CCTV)는 공산당 기관지 인민일보의 시 주석 홍보 자료를 소개하면서 "인민영수가 인민에 대한 진지한 감정을 선명하게 보였고 우리 당은 인민 우선의 가치 추구를 보였다"고 전했다.

아울러 중국공산당 텐베이엔 중앙정책연구실 부주임은 17일 당대회 프레젠테이션에서 열린 내외신 기자회견에서 "시진핑 총서기는 우리의 이 위대한 시대가 만든 결출한 인물이며 중앙소귀(衆望所歸·인망이 높은)의 인민영수"라고 말했다.

시 주석이 지난 16일 당 대회 개막식에서 읽은 업무보고에는 '인민영수' 또는 '영수' 표현이 포함되지 않았고, 22일 당 대회 폐막 때까지 당 대회 공식 문서에 해당 표현이 삽입될지 여부는 미지수

다.

하지만 이처럼 '인민영수' 표현이 광범위하게 언급되는 것은 이미 중국 공산당 기층 조직까지 시 주석을 '인민영수'로 칭한다는 공감대가 형성돼 있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앞서 CCTV 종합 채널인 CCTV-1은 지난 8일부터 15일까지 시 주석을 칭송하는 내용을 담은 연작 다큐 '링항(领航·항로를 인도하다)'을 방영하면서 '인민영수'라는 표현을 사용함으로써 14억 중국인들에게 영수 칭호를 보급했다.

상징적 의미가 큰 '영수' 칭호가 확산하면서 이미 10년을 집권하고 이번 당 대회를 거쳐 추가 5년을 확보할 것으로 예상되는 시 주석이 초장기 집권 구도를 그리고 있는 것 아니냐는 관측도 제기될 전망이다.

그간 중국 공산당 역사상 실질적으로 공인된 '영수'는 마오쩌둥(1893~1976) 한 사람이라는 게 중론이다. 아울러 덩샤오핑(鄧小平·1904~1997)처럼 현직에서 물러나 당과 국가의 공식 직책이 없는 상황에서도 '인민영수'로서 당과 국가 사무에 최후 결정권을 갖게 될 것이라는 예상도 존재한다.



이란 혁명수비대 지상군 병력이 18일(현지시간) 아르메니아 및 아제르바이잔과 국경을 접하는 서북부 이라크 지역에서 군사훈련에 참가하고 있다. /연합뉴스

서방, 러-이란 '무기 밀착'에 정면 대응 전환

미·영·프, 안보리 안전 제기 예정 우크라이나, 이란과 '절연' 선언

그간 수면 아래서 거론되던 러시아의 이란제 무기 사용 의혹에 서방이 정면 대응을 예고했다.

우크라이나에서 민간인 사망자가 속출하는 것을 더는 두고 볼 수 없다는 판단에 더해 특히 러시아와 이란의 밀착을 차단하려는 의도로 풀이된다.

우크라이나는 러시아와 손잡았다는 이유로 이란과 단교를 선언했고, 여기에 이란과 적대 관계인 이스라엘까지 외교적 압박에 가세하려는 모양새다.

미국을 필두로 한 서방 국가는 19일(현지시간) 이란의 러시아 무기지원 정황을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에서 안전조치로 제기할 계획이다.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북수의 외교 소식통은 미국, 영국, 프랑스가 이날 안보리 비공개 회의에서 이같은 안전을 낼 예정이라고 전했다.

이들 3개국은 또 이날 회의에서 유엔 관계자가 이와 관련한 보고를 하도록 요청할 것이라고 안보리 이사국에게 말했다.

이 같은 움직임은 '화력 고갈'에 직면한 러시아가 이란제 무기로 우크라이나를 공격해 민간인 사상자가 속출한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앞서 월요일인 17일 출근 시간대 우크라이나 수

도 키이우에 자폭 드론이 터지면서 임신부를 포함한 민간인 4명이 숨지기도 했다.

미국, 영국, 프랑스는 이란이 러시아에 무기를 지원하는 게 안보리 결의 2231호를 위반한 것이라고 주장한 바 있다.

우크라이나는 러시아에 공격용 드론을 공급했다며 이란과 '절연'을 선언했다.

드미트로 쿨레바 우크라이나 외무장관은 18일 기자회견에서 블로디미르 젤렌스키 대통령에게 단교 방안을 정식으로 제안했다면서 "이란은 양국 관계 파탄에 대한 전적인 책임을 져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또 러시아의 공습에 동원된 드론이 이란제 사헤드-136으로, 관련 증거가 넘쳤다고 강조했다.

우크라이나는 또 이란과 적대 관계인 이스라엘에는 손을 내밀었다.

쿨레바 장관은 이스라엘에 즉각적인 방공 시스템을 요청하는 한편 관련 분야 협력을 강화하자는 내용의 공식 서한을 보낼 예정이다.

우크라이나의 이런 움직임은 지난달 23일 러시아가 운용한 이란제 드론에 의해 민간인이 숨지자 자국 주재 이란 대사의 자격을 박탈하는 등 양국 외교 관계를 격하한 데 이어 것이다.

유럽연합(EU),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도 무기 지원을 확대하겠다고 압박 수위를 끌어올렸다.

“美 근원물가 안 잡히면 기준금리 4.75% 넘길 수도” 내달에도 0.75%p 인상 전망

미국 중앙은행인 연방준비제도(Fed·연준) 고위 인사가 근원 인플레이션(물가 상승)이 잡히지 않을 경우 기준금리 상단을 4.75% 이상으로 올릴 수 있다고 밝혔다.

18일(현지시간) 블룸버그·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닐 카시카리 미니애폴리스 연방준비은행(연은) 총재는 이날 한 행사 연설에서 가격 변동성이 큰 에너지와 식료품을 제외한 근원 인플레이션 수준과 관련해 이같이 말했다.

그는 "내년 초 기준금리가 4% 중반대로 오를 가능성이 크다고 공개적으로 말한 바 있다"면서도 "근원 인플레이션이 진전이 없으면 4.5%나 4.75% 등의 수준에서 기준금리 인상을 멈춰야 할 이유가 없다"고 말했다.

근원 인플레이션과 서비스 분야 인플레이션에서 실질적인 진전이 필요한데 아직은 관찰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연준은 40년 만에 최고 수준으로 치솟은 미국 물가를 잡기 위해 지난달까지 3차례 연속으로 기준금리를 0.75%포인트 인상해 금리 상단을 3.25%로 끌어올린 상태다.

하지만 최근 발표된 미국 9월 소비자물가지수(CPI)는 전년 동월보다 8.2% 올라 시장 전망을 웃돌았고, 특히 근원 CPI는 1982년 8월 이후 최대폭인 6.6%의 상승률을 기록했다.

이에 따라 다음 달 1~2일 FOMC 회의에서 연준이 다시 한번 금리를 0.75%포인트 인상할 것이라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프랑스 파리 파업 참가 노동자들 프랑스 파리 시내에 임금인상을 요구하는 파업 참가자들이 모여 있다. 프랑스 노동자들은 이날 물가상승을 감안한 임금인상을 요구하며 전국적인 파업에 들어갔다. /연합뉴스

‘직원 4만명’ 한국계 베트남 신발공장서 불

30분만에 진압... 인명피해는 없어

베트남의 한국계 신발 제조 공장에서 불이나 직원들이 대피하는 소동이 벌어졌다.

19일 현지매체인 VN익스프레스에 따르면 이날 오후 4시께 베트남 남부 동나이성에 위치한 C사의 공장에서 화재가 발생했다.

이에 소방 당국은 수백명의 대원과 다수의 차량을 급파해 30분만에 화재를 진압했다.

이 과정에서 직원들이 대거 공장에서 피신했으며 다행히 인명피해는 발생하지 않았다.

C사는 지난 1995년부터 현지에서 공장을 가동했으며 현재 직원 수는 4만명에 달한다.

특히 글로벌 스포츠 용품 업체인 N사의 하청업체로 동나이성에서는 가장 규모가 큰 제조업체로 꼽힌다.

소방당국은 현재 화재 원인과 피해 규모를 확인 중이다.

한국토지부동산(주) 전원주택 신축 매매 9억5천만원



전라남도 담양군 수북면 청소년수련관입구

- 대지 : 979㎡ (296.14평)
- 건물 : 323.86㎡ (98평)
- (지상2층, 지하주차장포함)

상담문의 010-3733-3933